
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/구연 논문분야 수부
논문제목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중증도 이상의 주관 증후군에서 최소 내상과
절제술의 효과
영문제목 **Minimal epicondylectomy improves neurologic deficits in
moderate to severe cubital tunnel syndrome**
발표자 김정환 책임저자 백구현
저자 김정환, 김강욱*, 이혁진, 이영호, 백구현
기관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, 포항 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학교실*

서론 : 주관 증후군에서 단순 감압술 및 최소 내상과 절제술은 경도의 증상만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주로 행해져 왔다. 그렇기 때문에 감각 또는 운동 신경의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단순 감압술 및 최소 내상과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시 어느 정도의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. 이에 저자들은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중증도 이상의 주관 증후군에서 최소 내상과 절제술의 치료 결과와 그 효용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 : 주관 증후군에서 단순 감압술 및 최소 내상과 절제술은 경도의 증상만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주로 행해져 왔다. 그렇기 때문에 감각 또는 운동 신경의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단순 감압술 및 최소 내상과 절제술을 시행하였을 시 어느 정도의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. 이에 저자들은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중증도 이상의 주관 증후군에서 최소 내상과 절제술의 치료 결과와 그 효용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.

결과 : 수술 후 평균 DASH 점수는 14점(2~47점)이었다.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은 우수 16명(64%), 양호 5명(20%), 약간 호전 2명(8%), 호전 없음 2명(8%)의 결과를 보였다. 25명의 환자 중 23명(92%)에게서 McGowan 등급으로 최소 한 등급 이상의 호전을 보였다. 수술 후 내측 주관절 불안정성 등의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.

결론 : 신경학적 장애를 보이는 중증도 이상의 주관 증후군에서 단순 감압술 및 최소 내상과 절제술은 큰 합병증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신경학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다.

acknowledgment :

주관 증후군, 최소 내상과 절제술
